

SOCIETY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안 쓰레기 '전국 최다'

한국전쟁 학살사건 유족들 승소
법원 "위법성 정도 매우 중대"

국가가 6·25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단독은 임모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226만~55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의 친족인 피해자는 1950년 11월 15일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월암고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재판부는 봉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6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봉씨 등의 가족의 경우 1950년 6월30일 경찰에 연행돼 같은 해 7월 중순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대명재 인근에서 학살당했다.

유모씨 등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 등은 나주시 동강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가족들로 각각 61만~88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51년 3월22일 목포우체국에 출근하기 위해 나섰다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가 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최근 4년간 6127t 발생...수거량 해마다 증가 추세
국립공원공단 "생태계 파괴...맞춤 관리체계 구축"

대한민국 해상·해안국립공원 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해안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전국 4개 해상국립공원의 해안쓰레기 발생량은 1만5985.09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115.62t, 2022년 3787.59t, 2023년 4150.74t, 지난해 4931.12t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해안쓰레

기 발생량이 6127.99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려해상국립공원 4775.98t, 태안해안국립공원 3957.99t, 변산반도국립공원 1123.13t 순이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안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189.42t, 2022년 1458.65t, 2023년 1628.94t, 지난해 1850.98t으로 증가했다.

공원별 관리지역(중점, 취약, 유보)과 미관리 지역(미분류)으로 나뉘려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관리구역에서의 해안



쓰레기 발생량 829.78t(미관리 799.16t)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려해상관리구역 513.16t(미관리 806.11t), 태안해상관리구역 703.08t(미관리 244.61t), 변산반도관리구역 100.11t(미관리 154.74t) 순으로 집계됐다.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도서는 782개(유인도서 104개, 무인도서 678개)로, 다도해해상이 592개(유인도서 71개, 무인도서 521개)로 가장 많았고, 한려해상 123개(유인도서 27개, 무인도서 96개), 태안해안 59개(유인도서 4개, 무인도서 55개), 변산반도 8개(유인도서 2개, 무인도서 2개)로 분석됐다.

해안쓰레기는 2017~2023년 공단 수거량 데이터를 활용, 공원별 관리지역(중점, 취약, 유보)과 미관리 지역에서 계산된 단위 길이당(1km) 수거량을 산출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발생 예방,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처리 등 3대 추진 전략을 세워 지역별 맞춤 스마트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해안쓰레기는 산호초, 해초밭 등 중요한 해양 서식지를 파괴해 해양 생물의 서식지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 균형을 파괴한다"며 "관광업, 어업 등 전반적인 해양 관련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탐방객 수는 연간 789만36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탐방객이 399만25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78만6956명, 변산반도국립공원 133만4898명, 태안해안국립공원 방문객 77만5916명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 대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다양한 입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입시 전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 말 대학별 수시모집요강 확정 발표에 맞춰 5~6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시교육청에서 권역별·거점별·지역별·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와 설명회도 꾸준히 운영한다.

7월에는 전국 13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광주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상시 온라인 상담, 대입디레터 순회상담, 토요 대입상

담, 수시·정시 집중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29일 '2026 대입 수시모집 기본편 설명회'(강사 이화여대부속고 교사 박권우)를 시작으로 4월9일 '고3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 연수'(강사 서울대진고 교사 안성환), 4월14일 '전남대, 조선대 대입전형 설명회'(강사 전남대, 조선대 입학사정관) 등을 개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고3 재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삼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



'나도 모델' 22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청소년꿈꾸리센터에서 열린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의 정규강좌인 바른자세모델워크업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수강생들이 모델 워킹을 배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본격 가동

17개 특구 시범지역 대상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남 1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내 관련 부서 장학사 및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28명이 참석해, 교육

발전특구 시범지역 17개 시군의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원단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상담, 현장 방문,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지원을 펼치게 된다.

지원단은 4월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유보공통교육·보육 △늘봄학교 △전남형 미래학교 △2030교실 △전남형 공동교육과정 △학급급 간 연계교육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IB 프로그램 △지울형공립고 △직업계고 △글로벌 인재 맞춤형 교육 등 주요 전남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사업 발굴과

자치법규 개선 검토, 예산 편성 협의까지 다방면에서 사업 추진을 돕는다. 현장의 애로사항은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 분야별로 담당자를 배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는 시범지역 전체와 공유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단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및 정책 반영 여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만 글로벌교육협력과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전남교육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남의 학생들이 전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2시간까지 요금 1000원...야간 무료 개방도

광주 광산구는 차량 소통과 시민 안전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정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1000원 공영주차장 한시 운영,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이용, 캠핑카 주차장 장기권 주차요금 할인이다.

1000원 공영주차장 한시 운영은 상가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2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공영주차장인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송정역 뒤편, 광산구 무진로(호남병원 옆),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운남동 공영주차장 등이 대상이다.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이용은 이용자가 적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무료 개방해 공영주차장 이용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산구는 또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로 제2공영주차장,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운남동 공영주차장,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 비아5일시장 제2공영주차장,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8개소를 야간 무료개방한다.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광주여대 캠핑카 주차장과 광주MBC 송신소 임시공영주차장은 정기권 이용률을 높이고 불법주차장을 방지하고자 6개월 이상 1년 이내 장기 주차권 선결제 금액을 월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광산구는 오는 30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요금 감면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광산구 교통지도과(062-960-8988)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상권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주차 요금을 감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모든 골퍼공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엑스페론은 그 당연함의 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은 생산하는 순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은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골퍼공 마다 나아가는 라인을 재설정 해야 합니다.

엑스페론 골퍼공은 밸런스와 무게중심을 과학적 특허기술을 적용해 골퍼공에 존재하는 단 1개의 퍼퍼라인과 드라이브 라인을 각각 마킹하여 세계최초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골퍼를 사랑하는 골퍼인은 평균 5타 이상 핸디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게 입증되었습니다.

엑스페론